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 구축을 위한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유형화와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과 드라마 <브리저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나 지 영**

■ 목 차 ■

I. 서론	Ⅲ.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로서의 가능성
Ⅱ.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 속 캐릭터의 유형화	1.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에 나타난 민담 속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
1. 민담의 화소로서 캐릭터에 내재한 보편성과 원형성	2.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로서 D형-I형-C형 조합이 갖는 의미
2.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원형적 캐릭터의 유형	Ⅳ. 결론

[초록]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 구축을 위한 민담 속 캐릭터의 유형화와 현대적 변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유형을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주요 분기점에서 서사의 주체가 보여주는 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캐릭터가 지니는 원형적 속성을 유형화하였다. 3장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2020)에 나타난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사에서 제기되었던 ‘성에 무지한 처녀’ 관련 민담 속 왜곡된 성 인식과 젠더 문제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19S1A5B5A07089235)

** 건국대학교 시간강사. tcnjy@konkuk.ac.kr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민담, 캐릭터, 원형성, DISC 행동유형, 성에 무지한 처녀, <브리저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I. 서론

지금 우리는 서사 창작의 주체가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미디어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스토리텔링 영역이 매체 횡단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 시대에 살고 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는 다른 어떤 스토리 구성 요소보다 더 중요성을 가진다(윤혜영, 2020, 341쪽). 트랜스미디어의 캐릭터는 무한히 변형 가능한 스토리 세계에서 의미의 고정점으로 기능한다(서성은, 2018, 74쪽). 미디어 사이클 오가는 캐릭터의 이동은 스토리텔링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욕망을 반영한다.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캐릭터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의 캐릭터를 둘러싼 이야기 산업과 창작자, 사용자라는 모든 주체가 공유하는 욕망이다. 모든 캐릭터가 재창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캐릭터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창작되기 위해서는 ‘원형성’을 지녀야 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핵심 구성 요소가 원형성을 간직한 캐릭터임에 주목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개별적이며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핵심적으로 응축하는 원형적 서사 양식인 민담 속 캐릭터에 주목하면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의 원형적 캐릭터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특히 DISC 행동유형과 민담 속 캐릭터 연구를 연계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민담 속 캐릭터의 유형화를 지향한다. DISC 행

¹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혜영(2020), “캐릭터 기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 연구: 노드롭 프라이의 이론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61,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이동은(2016), “메타이야기적 상상력과 캐릭터 중심 스토리텔링 모델”,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2,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임혜리(2018), “고전 한문소설 《삼한습유》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유형(DISC behave type)은 D(Dominance, 주도형), I(Influence, 사교형), S(Supportiveness, 안정형), C(Conscientiousness, 신중형) 4가지 요소 중 어떤 형태의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유형을 분류한다. 행동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유형별 공통점을 도출하기에 유용하며 개인의 성격을 결정짓는 행동과 동기를 통해 행동유형을 파악하여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유형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박수빈·고혜영, 2017, 120쪽).

2장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성에 무지한 처녀’가 등장하는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유형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성에 무지한 처녀’ 유형의 캐릭터는 오랫동안 반복 재생산되어 온 창작의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다양한 영상 콘텐츠 속 ‘성에 무지한 처녀’ 형 캐릭터들의 원형을 민담 속에서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다. 최근의 연구 흐름에서는 ‘페니스의 절대화와 신화화’에 초점을 맞추며(김시연, 2019; 김영희, 2019), 젠더적 우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관점(한유진, 2022)에서 ‘성에 무지한 처녀’ 관련 민담이 해석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자체에 내재한 ‘원형성’과 ‘보편성’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각 캐릭터가 자신에게 당면한 중요한 문제 지점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여야 하는 ‘서사의 주체’라고 전제하면서, 캐릭터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사의 의미와 가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에 무지한 처녀’가 등장하는 민담 중에서도 특히 ‘처녀의 부모’-‘성에 무지한 처녀’-‘처녀를 속이는 남자’의 관계 구도가 잘 나타나는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캐릭터의 유형화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관계성이 두드러지는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각 캐릭터에게 당면한 문제상황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서사의 분기점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서사의 주체가 분기점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곧 그 캐릭터가 지닌 존재적 속성 내지 원형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주요 분기점에서 서사의 주체가 보여주는 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캐릭

터가 지니는 원형적 속성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을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저튼>은 2020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첫 달 만에 무려 8천 2백만 명이 시청한 역대급 인기 드라마로 2022년에는 시즌 2도 방영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방영된 <브리저튼> 시즌 1을 대상으로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사에서 제기되었던 ‘성에 무지한 처녀’ 관련 민담 속 왜곡된 성 인식과 젠더 문제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 속 캐릭터의 유형화

1. 민담의 화소로서 캐릭터에 내재한 보편성과 원형성

민담 속 캐릭터는 그 자체로 원형적 의미 요소를 지닌 중요한 화소²로서, 인간 정신과 삶의 정수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에 무지한 처녀’ 캐릭터는 민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캐릭터 중 하나이다. 성에 무지한 존재이기에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상황이 있다. 바로 남성에 의해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에 무지한 처녀와 짝이 되는 캐릭터는 바로 ‘처녀를 속이는 남성’ 캐릭터이다. ‘성에 무지한 처녀’라는 캐릭터는 남성에게 속게 된다는 핵심 분기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민담이 특정 화소를 내세워 그 안에 상징과 은유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이 ‘성에 무지한 처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의 한 부분을

² 민담 속 ‘화소’에 관한 다음의 논의는 본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다.

‘특별한 의미 자질을 지니는 이야기 요소를 설화학에서는 ‘화소’라고 한다. 설화의 화소는 특이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쉽사리 파괴되지 않고 용이하게 기억되며 독립적인 생명력을 지닌다.’ 신동훈(2016),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33권, 한국화법학회, 64쪽.

담아내고 있는 캐릭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에게 속게 되는 지점에서 ‘성에 무지한 처녀’가 보여주는 태도와 지향성은 이 캐릭터에 내재하여 있는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속성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 동향과 차이점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한유진은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을 포함하여 구비설화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문제를 ‘젠더 비평’,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구비설화에는 남성이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행위의 폭력성이 명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서사적 차원에서 묵인되거나 심지어 긍정되는 등 폭력적 성 관념이 내재하여 있다. 이로 인하여 서사의 지향이나 전승 주체의 의도 및 반응에 따라 텍스트를 읽을 경우 이야기 안에서 자연화되거나 은폐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문제성은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지적한다(한유진, 2022, 17쪽).

이와 같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을 더 세심하게 읽어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캐릭터 자체에 내재하여 있는 ‘보편성’과 ‘원형성’,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캐릭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캐릭터가 자신에게 당면한 중요한 문제 지점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여야 하는 ‘서사의 주체’라고 전제하면서, 그 캐릭터 자체에 내재한 존재적 속성과 변용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원형적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을 탐색하는 일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들이 현대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고,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에 무지한 처녀’가 등장하는 여러 민담 중에서도 특히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 유형을 중심으로 원형적 캐릭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담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에는 ‘성에 무지한 처녀’를 중심으로 ‘처녀를 속이는 남성’, ‘처녀의 부모’ 캐릭터가 모두 등장하면서 각 인물 간의 상호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

한 남자>로 볼 수 있는 각편이 10편 채록되어 있다.³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어떤 부모가 외출하게 되어 집에 딸이 혼자 남게 되었다.
- ㉡ 부모는 외출하는 길에 낯선 남자(장사꾼, 소금장수)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에게 자기 집에 딸이 혼자 있으니 절대 가지 말라고 한다.
- ㉢ 처녀 부모의 말을 듣고 남자는 처녀에게 찾아가 더위를 빼준다면서 성관계를 갖는다.
- ㉣ 남자는 성관계 후에 나온 정액이 더위를 뺐다는 증거라고 보여주면서, 단지에 담아 보관하게 한다.
- ㉤ 나중에 처녀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처녀는 어떤 남자가 더위를 빼주었다면서 단지에 담긴 남자의 정액을 보여준다.
- ㉥ 부모가 화를 내며 단지를 내던졌는데, 이웃 할멈이 음식을 버리면 안 된다면서 단지 안에 들어있던 정액을 먹는다.

㉠,㉡ 대목은 처녀의 ‘부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처녀의 부모가 딸을 위협에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부모는 혼자 집에 남아 있는 딸을 걱정하면서 도중에 길에서 만난 낯선 남자에게 ‘딸이 혼자 집에 있으니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딸이 이성과 단둘이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또한 처녀가 남자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던 것은 성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인데, 이 역시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이 ‘성에 무지한 처녀’를 속여 성관계를 갖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는 특히 처녀의 ‘부모’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⁴

³ 『한국구비문학대계』 6-4, 670-672쪽; 『한국구비문학대계』 6-2, 798-801쪽; 『한국구비문학대계』 5-7, 727-729쪽;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298-300쪽; 『한국구비문학대계』 6-7, 108-110쪽; 『한국구비문학대계』 1-6, 111-116쪽; 『한국구비문학대계』 6-2, 693-694쪽;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842-845쪽; 『한국구비문학대계』 8-9, 205-206쪽; 『한국구비문학대계』 6-6, 249-250쪽.

⁴ 김시연 역시 처녀의 부모 역할에 주목한다. ‘오히려 노부부의 역할은 집안 상황을 통제할 사람, 다시 말해 딸

㉔,㉕ 대목은 처녀를 찾아가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남자는 자신이 처녀의 부모와 잘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처녀를 안심시킨 뒤에, 처녀의 몸 안에 있는 더위를 빼주겠다는 명목으로 처녀와 성관계를 갖는다. ‘처녀를 속이는 남자’는 ‘트릭스터’, ‘단힌 성을 열어주는 책략가’, ‘정력가’, ‘중계자와 매개자’ 등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유승훈, 2011), 절대화된 페니스와 남성 섹슈얼리티의 신화라는 관점에서 왜곡된 ‘남성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⁵ 성에 대해 무지한 처녀는 정말로 자기 몸 안의 더위를 빼주는 것인 줄 알고 낮선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⁶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 나온 남자의 정액이 자기 몸 안에 들어 있던 더위라고 믿는다. 남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처녀의 ‘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⁷

㉖,㉗ 대목은 남자가 떠난 이후의 ‘처녀’와 ‘처녀의 부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처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집에 돌아온 부모에게 ‘정액’을 보여준다.⁸ 처녀의

의 ‘처녀성’을 지킬 사람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알린 뒤 퇴장하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김시연, 앞의 논문, 57쪽.) 본 연구에서는 처녀의 부모 캐릭터가 지니는 역할을 보다 확장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처녀가 성에 무지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5 김시연은 ‘페니스의 부재를 ‘여성’ 인물의 결핍 상태로 설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성’ 인물이 문제를 해결할 페니스를 지는 ‘남성’ 인물에게 페니스를 갈구하는 욕망을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골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남성은 ‘이야기 속 모든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애당초 누구의 적수도 아니다. … 이때 소금장수가 위계의 우위에 놓이는 것은 그의 남성성과 긴밀히 연관된다’라고 지적한다. (김시연, 앞의 논문, 71~72쪽.)

6 김영희는 “여성’은 이성애적 성애의 대상으로 그려질 뿐이며 무엇보다 ‘여성’은 ‘남성’ 섹슈얼리티의 성애적 대상으로서의 ‘몸’, 특히 그 중에서도 삽입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을 중심으로 치환되어 있다. 이야기 속에서 모든 성적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지만 이 과정은 모두 억압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일깨워 새로운 환희를 맛보게 한 여정으로 미화’된다고 지적한다. (김영희, 앞의 논문, 129쪽.)

7 본 연구에서는 처녀가 남성에게 속아 성관계를 맺게 된 기저에 처녀의 ‘성에 대한 무지’가 자리를 잡고 있음을 주목한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된 젠더적 우위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캐릭터 자체에 내재하여 있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원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 문제상황과 연결 지으려는 것이다.

8 김시연은 ‘소금장수가 처녀를 겁탈하고 떠난 뒤에 이어지는 서사 후반부에서는 처녀의 부모가 다시 등장하여 소금장수가 한 일들을 알게 되는데, 이때 부모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인 처녀와 달리 소금장수가 한 일들의 의미를 아는 이들로써, 처녀가 지닌 ‘처녀성’의 실질적인 보호자에 해당한다. 종지에 담긴 애액은 소금장수가 처녀의 ‘처녀성’을 정복했다는 물리적인 증거로서, 부모가 그것을 확인하고 분노하는 것을 통해 소금장수가 처녀를 속여 ‘처녀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이 완성되고 공인되는 것이다. 이는 처녀를 겁탈한 것이 그저 처녀 개인의 ‘순결’을 빼앗은 일이 아니라, 처녀가 남편에게 귀속되기 전 그의 ‘순결’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부모의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김시연, 앞의 논문, 58쪽.)

부모는 그제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게 되고, 화가 나서 정액이 담긴 단지를 던져버린다. 몇몇 각편에서는 이웃 할멈이 찾아와서 왜 이 아까운 것을 버리느냐며 정액을 마시기도 하고⁹, 또는 처녀가 이것은 좋은 것이니 엄마도 먹어 보라고 권하기까지 한다.¹⁰ 처녀가 남자와의 성관계를 즐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각편¹¹도 있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잘살게 되는 각편¹²도 있다.

민담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는 처녀를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처녀를 위기로 몰고 가는 부모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남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부모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처녀의 부모’에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 속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처녀를 속이는 남성’이 ‘성에 무지한 처녀’를 속여 성관계하게 된 것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출발점에는 성에 무지한 처녀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놓칠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에 무지한 처녀’와 ‘처녀를 속이는 남자’, ‘처녀의 부모’는 각각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된 보편성과 원형성을 간직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유형의 캐릭터가 서로 어우러지며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자체의 서사적 의미와 가치가 오늘날에도 ‘성에 무지한 처녀’ 관련 캐릭터들이 끊임없이 재창작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논의는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이 전승 집단의 인식이나 향유층의 문제, 젠더별 서사의 차이를 살피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¹³ 그러한 맥락 역시 주의 깊게 같이 살펴야 하겠으나, 본 연구에서의 주안점은 ‘이야기 자체’의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소재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창작되고 있는지,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이야기 자체에 내재한 서사의 힘을 발굴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특히 민담의 화소로서 캐릭터 하나하나가

⁹ 『한국구비문학대계』 6-4, 670-672쪽; 『한국구비문학대계』 6-2, 798-801쪽.

¹⁰ 『한국구비문학대계』 5-7, 727-729쪽.

¹¹ 『한국구비문학대계』 8-9, 205-206쪽.

¹² 『한국구비문학대계』 1-6, 111-116쪽; 『한국구비문학대계』 6-2, 693-694쪽.

¹³ 한유진은 남성인물이 ‘혼인’이나 ‘처녀성의 정복’ 등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젠더적 우위’를 이용하여 여성 인물을 ‘성적으로 지배’하는 유형의 이야기는, ‘성적 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전승집단의 성 인식을 읽어 보게 해주며 남성 편향적인 향유층의 문제와 젠더별 서사의 차이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긴요한 자료가 됨을 언급하였다. (한유진, 앞의 논문, 35쪽.)

지니는 보편성과 원형성에 주목하면서, 각 캐릭터가 어떠한 문제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지, 그 캐릭터의 역할과 속성이 우리 삶 속 어떤 문제 지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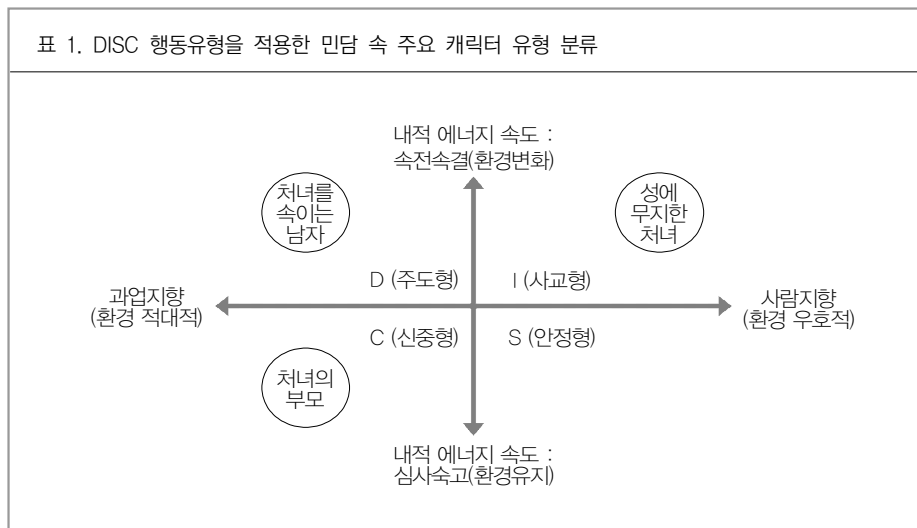
2. DISC 행동 유형에 따른 원형적 캐릭터의 유형

DISC 행동모델은 외부세계로 표출되는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론들과 근본적으로 차별된다(박수빈·고혜영, 2017, 120쪽). 한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는지, 적대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지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4가지 인간 행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민담은 특히 캐릭터의 ‘행동’을 통해 그 인물의 성격, 성향, 지향점 등을 드러낸다. 인물의 내면이나 심리 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분기점에서 각 인물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만을 보여 줄 뿐이다. 따라서 민담 속 캐릭터의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인물이 주요 분기점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파악해야 한다. DISC 행동모델은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캐릭터의 성향을 드러내기에 유용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다. DISC는 행동유형 검사로 외부로 표출되는 캐릭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가 민담 내에서 행동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행동의 경향까지 드러내 줄 수 있다.

지금부터 ‘성에 무지한 처녀’와 ‘처녀를 속이는 남자’, ‘처녀의 부모’ 캐릭터 자체에 내재한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핵심 속성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DISC 행동 유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각 캐릭터에게 당면한 문제상황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서사의 분기점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서사의 주체가 분기점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곧 그 캐릭터가 지닌 존재적 속성 내지 원형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주요 분기점에서 서사의 주체가 보여주는 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캐릭터가 지니는 원형적 속성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DISC 행동유형은 내적 에너지의 속도와 내적동기에 기인하고 있다. 내적 에너지는 인간 행동의 속도에 관한 것으로 개인 삶에서 페이스로서 속전속결형과 심사숙

고형으로 나타난다. 내적동기는 인간 행동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이를 과업중심형과 인간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상미, 2011, 11-12쪽).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민담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 속 주요 캐릭터들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에 무지한 처녀’의 DISC 행동유형 : I형(사교형)

‘성에 무지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상황은, ‘성에 무지하지 않은 존재’에 의해 속는 것이다. ‘성에 무지한 처녀’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움직이느냐가 이 캐릭터 자체에 내재한 원형적 속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성에 무지한 처녀를 남성의 성적 폭력에 희생당하는, 대상화된 타자로서만 이해한다면, ‘성에 무지한 처녀’가 지니는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텍스트의 전면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에 무지한 처녀 역시 서사의 주체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에 무지한 처녀’를 남성에게 의해 성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성 페니스의 절대화와 신화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페니스가 ‘결핍’된 존재로서만 인식한다면¹⁴, 이 이야기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결과

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성에 무지한 처녀’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캐릭터에 내재한 원형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서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처녀를 속이는 남성’이 접근하여 ‘새로운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서사 주체로서 ‘성에 무지한 처녀’가 보여주는 행동 특성을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처녀에게 있다는 이 ‘속병’은 남성의 속임수이기도 하지만, 처녀가 당면해 있는 ‘은유적 결핍 상황’이기도하다는 점이다. ‘성에 무지한 처녀’라는 원형적 캐릭터가 내재하고 있는 존재적 속성, 특수한 ‘결핍’이 무엇이고,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이 따르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해 보면, 서사 주체로서 ‘성에 무지한 처녀’ 캐릭터의 행동유형은 I형(사교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성에 무지한 처녀’에게는 I형의 대표적 특징인 ‘낙천적, 열정적, 충동적’인 속성, ‘비현실적 사고, 비체계적 경향’ 등의 제한점이 나타난다(김영희·이건웅·이승철, 2012, 72-73쪽). I형 인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성에 무지한 처녀’는 <표 1>에서 속전속결(환경변화 초점)+사람지향(환경우호적 인식)의 분면에 위치한다. ‘성에 무지한 처녀’의 내적 에너지 속도는 ‘속전속결’이다. 처녀는 처음 만난 낯선 남자를 아무런 의심 없이 집안으로 받아들이고, 남자가 처녀의 몸속에 들어있는 더위를 빼주겠다고 했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성에 무지한 처녀’는 ‘과업지향’보다는 ‘사람지향’형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또는 먼 친척이라고 속이는데, 이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처녀는 상대방의 처지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부탁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내적 에너지의 속도가 ‘속전속결’이며, 환경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지향’형의 I형은 환경을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물이다. ‘성에 무지’하다는 은유와 상징으로서 이 처녀 캐릭터를 이해할 때, 성에 무지한 처녀는 기존 규범으로

¹⁴ 김영희는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여성’의 내면은 전혀 초점화되지 않으며, ‘여성’은 행위 주체가 되거나 행위 동기를 갖지 못한 채 오직 ‘대상’으로만 드러난다.’라고 지적한다. (김영희, 앞의 논문, 121쪽.) 물론 그런 측면이 있으나, ‘성에 무지한 처녀’가 행위 주체로서 움직이고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관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터 억압된 욕망을 품고 있는데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본인 자신도 그 욕망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캐릭터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억압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아무 의심 없이 낯선 이성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일, 그 일로 인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 등은 남자와의 관계가 이 처녀에게 새로운 변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처녀는 처음부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캐릭터였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수용하며, 오히려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I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처녀를 속이는 남자’의 DISC 행동유형 : D형(주도형)

‘처녀를 속인 남자’ 캐릭터의 행동유형은 D형(주도형)에 해당한다. ‘처녀를 속인 남자’에게는 D형의 대표적 특징인 ‘결과 성취, 목표지향적, 주도적, 자신감’과 ‘타인 배려 부족, 무모함’ 등의 속성,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김영화·이건웅·이승철, 2012, 115쪽). D형 인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처녀를 속이는 남성’은 <표 1>에서 속전속결(환경변화 초점)+과업지향(환경적대적 인식)의 분면에 위치한다. ‘처녀를 속이는 남성’의 내적 에너지 속도는 ‘속전속결’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다음으로 ‘처녀를 속이는 남자’는 ‘사람지향’형이 아니라 ‘과업지향’형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추진력이 넘치고 과도하게 목표지향적이다 보니 상대를 쉽게 대상화하면서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처녀를 속인 남자’가 항상 처녀에게 ‘정액’을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하여 부모에게 보여주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남자는 자신이 처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처녀의 부모에게 감추려고 하지 않고, 처녀의 부모가 반드시 알게 만드는 것이다. ‘처녀를 속이는 남자’는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기존 환경의 안정적 유지가 아닌 기존 환경의 균열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이다.

3) '처녀의 부모'의 DISC 행동유형 : C형(신중형)

'처녀의 부모' 캐릭터의 행동유형은 C형(신중형)에 해당한다. '처녀의 부모'에게는 C형의 대표적 특징인 '분석적, 비판적, 심사숙고' 등의 속성,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써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점과, '예민하고 매사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제한점이 등이 나타난다(김영화·이건웅·이승철, 2012, 105쪽). C형 인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처녀의 부모'는 <표 1>에서 심사숙고(환경유지 초점)+과업지향(환경적대적 인식)의 분면에 위치한다. '처녀의 부모'는 내적 에너지가 '심사숙고'형이면서, 환경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인물형이다. 또한 C형의 제한점처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캐릭터이다. 다음으로 '처녀의 부모'는 '사람지향'이라기보다 '과업지향'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처녀의 부모'는 처녀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처녀를 낫선 이성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처녀가 실제 낫선 이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상태로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C형인 '처녀의 부모'와 핵심적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인물은 D형인 '처녀를 속인 남자'이다. C형과 D형은 유형별 궁합 관계에서 '매우 미흡한 궁합 관계'를 보여준다고 논의된 바 있다(김영화·이건웅·이승철, 2012, 124쪽)¹⁵. 두 유형 모두 '환경을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C형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고, D형은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I형인 '성에 무지한 처녀'와 C형인 '처녀의 부모' 또한 '매우 미흡한 궁합 관계'로 논의되었다(김영화·이건웅·이승철, 2012, 124쪽). 두 유형은 기본적인 특징이 완전히 상반된다. 환경을 인식하는 태도도 반대이며 우선 순위 또한 반대이다. DISC 유형별 궁합 관계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면, 가장 최악의 조합은 D형-C형과 I형-C형 두 가지인데, 모두 민담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에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D형과 I형은 궁합이 ' 좋음'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DISC 유형별 궁합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 속 주요 캐릭터 간의 유형별 궁합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¹⁵ 이 책에서 유형 별 궁합 관계를 정의한 근거는 임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랫동안 수많은 내담자의 DISC 유형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통계적으로 궁합 관계가 좋은 유형과 나쁜 유형을 나누었다.

표 2. DISC 유형별 캐릭터 궁합 관계

	최상	좋음	보통	미흡
D형(처녀를 속인 남자) -I형(성에 무지한 처녀)		○		
D형(처녀를 속인 남자) -C형(처녀의 부모)				○
I형(성에 무지한 처녀) -C형(처녀의 부모)				○

‘처녀의 부모’는 ‘성에 무지한 처녀’와 ‘처녀를 속인 남자’와 만났을 때 ‘미흡’한 궁합 관계이고, ‘처녀를 속인 남자’와 ‘성에 무지한 처녀’는 ‘좋은’ 궁합 관계라는 결과가 나온다.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 간의 조합을 보았을 때, ‘처녀의 부모’가 이야기 속 핵심 문제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캐릭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처녀의 부모’ 캐릭터가 지닌 속성은 ‘성에 무지한 처녀’와 ‘처녀를 속인 남자’ 캐릭터의 속성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처녀를 속인 남자’와 ‘성에 무지한 처녀’의 DISC 유형별 궁합 관계가 ‘좋음’으로 나온 것도 주목할만하다. D형과 I형 모두 ‘환경의 변화’를 지향한다. ‘성에 무지한 처녀’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자의 거짓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것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에 무지한 처녀는 처음부터 변화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캐릭터였고, D형과의 만남은 그러한 처녀의 지향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Ⅲ.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로서의 가능성

1.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에 나타난 민담 속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

D형(주도형)과 I형(사교형)은 모두 ‘변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D형과 I형의 결합은 이야기 속에서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민담에서는 그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그리고 실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민담 속에서 D형과 I형의 공합 관계는 ‘ 좋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2020)에 나타난 민담 속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면 그 ‘변화’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드러날 수 있다. <브리저튼>은 2020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첫 달 만에 무려 8천 2백만 명이 시청한 역대급 인기 드라마로, ‘성에 무지한 처녀’, ‘처녀를 속이는 남자’, ‘처녀의 부모’ 캐릭터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민담 <더위 빼준다며 처녀와 성관계한 남자>와 드라마 <브리저튼>의 가장 큰 공통점은, 여성 캐릭터가 ‘정액’이라는 주요 화소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성적 무지함을 극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정액’이라는 화소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성에 무지한 처녀 캐릭터가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는 분기점이 반드시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액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는 문제상황은 ‘성에 무지한 처녀’가 지닌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속성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작품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여성 캐릭터가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작품 모두 여성 캐릭터를 ‘피해자’의 위치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액’을 매개로 하여 성적 무지함이 드러난 이후에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이 강조된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¹⁶

¹⁶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의 이야기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사에 대해 김시연은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껏 이와 같은 성격의 이야기들은 주로 ‘욕담’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논의되며 ‘민중의 솔직하고 건강한 본능적 욕구가 표출된’ 이야기로 연구되어 왔다. 이는 이제껏 구비문학 장르에서 이루어져 온 ‘욕담’ 연구의 대전제가 성욕의 ‘본능적’ 성질을 강조하며 그것을 사회적 억압과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로부터 탄생한 ‘은폐·억압되는 성’과 ‘억압하는 사회’, 그리고 그로부터의 ‘성 해방’이라는 분석틀은 구비문학이 ‘민중적’ 장르라는 전제와 맞물려 구전이야기 ‘욕담’의 가치를 문학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의식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근거로도 작용했다. …성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다만 ‘인간 본성인 성욕에 대한 긍정’이라는 틀로 납작하게 해석되면서 그것이 누구의, 어떤 성욕을 긍정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것을 ‘본성’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 어떤 것이 성찰되지 않고 자연화되어 있는지는 간과되어왔다.’ (김시연, 앞의 논문, 48~49쪽.)

이러한 그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한편으로 ‘처녀’에게는 애초에 ‘주체적인’ ‘변화’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관점이 내재하여 있다고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처녀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에 의한 희생양의 역할만을 부여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민담의 현재적 가치는, 전승 집단의 왜곡된 성 의식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인가. 분명히 이 이야기 자체가 지닌 서사의 의미와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에 무지한 처녀’

여주인공 ‘다프네’는 ‘성에 무지한 처녀’의 원형성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성에 무지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고, ‘불임’인 줄 알았던 남편 사이먼이 사실은 ‘피임’을 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다. 다음으로, 남주인공 ‘사이먼’은 ‘처녀를 속이는 남자’의 원형성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성을 사랑과 연결 짓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마지막으로 다프네의 큰오빠인 ‘안소니’는 여동생인 ‘다프네’의 보호자를 자처하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처녀의 부모’와 같은 속성을 보여준다.

<브리저튼>은 총 여덟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의 상영시간은 60분 정도이다. <브리저튼>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 유명한 귀족 가문 브리저튼의 장녀이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다프네’는 ‘좋은 신랑감’을 구하고자 한다.
- ㉡ 최고로 인기 많은 신랑감인 공작 ‘사이먼’은 사랑을 믿지 않으며 결혼을 피하고자 하지만, 주변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
- ㉢ 다프네는 원치 않는 신랑감으로부터 도망가고 자신의 신붓감으로서의 명성을 높여 더 많은 신랑감 후보를 만나기 위해, 사이먼은 결혼하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사람은 ‘계약 연애’를 하기로 한다.
- ㉣ 사이먼의 제안에 따라 거짓으로 연애하는 척을 하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짜 호감을 느끼게 되지만, 다프네의 큰오빠 ‘안소니’의 반대에 부딪힌다. 아버지가 부재한 다프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하는 안소니는 사이먼과 친구 사이였지만, 자신처럼 난봉꾼 기질이 있는 사이먼이 여동생과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
- ㉤ 안소니는 사이먼과 총으로 결투를 해서 다프네의 명예를 되찾고자 했으나, 다프네의 개입으로 누구도 다치지 않고 결국 사이먼과 다프네는 결혼하게 된다.
- ㉥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던 두 사람에게 한 가지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다프네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었고, 사이먼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이

가 특정한 문제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서사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처녀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으나,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특정 문제상황을 마주해야 했고, 그것은 처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처녀에게 당연한 인생살이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먼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로 인해 자신은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 다프네는 사이먼과의 성관계 이후 사이먼의 몸에서 나오는 ‘정액’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는데, 사이먼은 다프네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다.
- ㉡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다프네는 사이먼이 자신을 속이고 피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를 찾아가 자신을 이토록 성에 무지하게 방치한 것에 대해 원망하였다.
- ㉢ 사이먼과 다프네의 관계는 과정에 이르렀지만, 가문의 체면을 위해 행복한 부부 행세를 계속했다.
- ㉣ 다프네는 사이먼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 자신과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재결합한다.
- ㉤ 이제 서로에게 어떤 거짓도 없는 다프네와 사이먼은 진실하게 사랑하며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반면, 다프네의 오빠 안소니는 사랑하던 창녀와 헤어지고 사랑에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제 ‘성에 무지한 처녀’, ‘처녀를 속이는 남자’, ‘처녀의 부모’가 지닌 원형성을 계승한 캐릭터들이 드라마 <브리저튼>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성에 무지한 처녀’와 <브리저튼>의 ‘다프네’: I형(사교형)

I형(사교형)은 ‘사교적, 긍정적, 낙천적, 열정적’이라는 특성과, ‘충동적이고, 불안정을 즐긴다’라는 단점,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김진태 외, 2020, 43쪽)이 나타나는 캐릭터이다. 민담 속 ‘성에 무지한 처녀’와 <브리저튼>의 ‘다프네’에게서는 이러한 I형의 기본적 특성들이 잘 포착된다. 민담 속 ‘성에 무지한 처녀’가 낯선 남자의 거짓말을 쉽게 믿고 따르면서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듯, <브리저튼>의 다프네 역시 모두를 속이면서 사이먼과의 대담한 거짓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사이먼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쉽게 속기도 한다.

‘성에 무지한 처녀’와 ‘다프네’가 남자의 거짓말을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성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민담 속 ‘성에 무지한 처녀’는 남자와의 성관계 이후 남자의 몸에서 나온 ‘정액’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다. <브리저튼> 속 다프네 또한 사이먼의 몸에서 나온 ‘정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아이를 낳고 싶었던 다프네는 남자의 정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프네는 사이먼이 일부러 정액을 버리고 피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한참 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캐릭터의 중요한 차이점은 캐릭터가 지닌 ‘욕구’와 목표 의식이다. 민담 속 ‘성에 무지한 처녀’에게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의지나 목표 의식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처녀에게 아무런 욕구가 없고, 환경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여기서 텍스트 기저에 감춰져 있는 처녀의 억압된 욕구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처녀의 억압된 욕구는 <브리저튼>의 다프네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다프네는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민담 속 ‘성에 무지한 처녀’에게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그 이성과 결합하고 싶다는 욕구가 내재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바로 <브리저튼>의 다프네가 ‘계약 연애’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 <브리저튼>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대놓고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 등을 마음대로 표출했다가는 사회적 질타와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다프네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회적 체면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절의식 등으로 인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신랑감을 마음 놓고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신랑감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다프네는 사이먼과 가짜 연애를 시작한다. 공개적으로 누군가와 연인이 되면 원하지 않는 신랑감을 억지로 만날 일도 없어지고, 다른 신랑감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신붓감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회 규범의 감시를 피해 최대한 안전하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가짜 연애’를 내세운 것이다.

민담 속 ‘성에 무지한 처녀’ 역시 대놓고 자신의 욕구를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프네처럼 성에 무지한 처녀가 자신의 진짜 욕구를 탐색할 기회는 ‘가짜 판’이 아니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처녀를 속인 남자가 만들어 놓은 ‘가짜 판’ 속에서 처녀는

일방적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가짜 판이 아니고서는 자연스럽게 진짜 욕망을 탐색하고 실현할 기회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I형이라 할 수 있는 ‘성에 무지한 처녀’와 그 원형성을 계승한 <브리저튼>의 ‘다프네’는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지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없는 캐릭터이다. 이러한 이중적 캐릭터에게는 ‘가짜 판’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억압된 욕망을 탐색하고 표출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치로서의 ‘가짜 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가짜 판’이라는 계기를 통해 억압된 욕망이 안전하게 탐색 되고 나면, I형 캐릭터가 지닌 ‘변화’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 여기서 가짜 판을 제공할 수 있는 D형과의 만남은 I형의 변화를 추동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2) ‘처녀를 속이는 남자’와 <브리저튼>의 ‘사이먼’ : D형(주도형)

D형(주도형)은 ‘강한 주장, 큰 자신감, 강한 자의식, 도전적, 목표지향적’이라는 특성과, ‘성격이 급함, 공격적’ 등의 단점, ‘통제력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김진태 외, 2020, 36쪽)이 나타나는 캐릭터이다. 민담 속 ‘처녀를 속이는 남자’와 <브리저튼>의 ‘사이먼’에게서는 D형의 전형적 모습들이 나타난다. D형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환경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며 방어하기보다는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행동 특성, 즉 대담함, 적극성, 진취적인 행동 등이 주로 나타난다. ‘처녀를 속이는 남자’와 ‘사이먼’에게는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D형의 두려움은 ‘통제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판을 계획하고 움직이려는 지향성이 강하다. 민담 속 ‘처녀를 속이는 남자’는 처녀의 부모를 통해 처녀가 혼자 집에 남아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모든 판을 순식간에 계획한다. <브리저튼>의 사이먼 역시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지향성이 강한 인물이다. 사이먼은 다프네와의 ‘계약 연애’를 기획하고, 계약 연애를 하는 동안 다프네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코치를 해준다.

<브리저튼>에서는 D형 남성이 I형 여성의 억눌린 성적 욕망을 일깨워준다는 점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사이먼은 D형 특유의 자신감과 대범함으로 다프네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에서도 ‘성(性)’은 가장 중요한 화두

이다. ‘성에 무지한 처녀’ 캐릭터가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남녀 간의 성 또는 개인의 성적 욕망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민담 속 ‘처녀를 속이는 남자’ 또한 ‘성에 무지한 처녀’가 ‘성’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민담 속 ‘처녀를 속이는 남자’와 <브리저튼>의 ‘사이먼’ 모두 상대 여성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두 캐릭터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 <브리저튼>의 ‘사이먼’은 매력적인 이미지로 많은 관객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민담 속 ‘처녀를 속이는 남자’는 불한당 같은 이미지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각 캐릭터가 보여주는 욕구 충족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담 속 ‘처녀를 속인 남자’는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욕구 충족의 전부이며, 그 과정에서 일방적 관계 맺기 방식을 보여준다. 반면 <브리저튼>의 ‘사이먼’은 점차 자신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캐릭터이다. 그 억눌린 새로운 욕구는 바로 ‘사랑’이었다.

‘처녀를 속이는 남자’ 캐릭터가 지니는 원형적 속성의 핵심은 ‘성(性)’을 ‘사랑’과 연결 짓지 못하고 착취적인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점이다. 이 또한 ‘성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처녀를 속이는 남자’와 ‘사이먼’은 성의 긍정적 측면, 즉 성이 ‘사랑’ 또는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처녀를 속이는 남자’는 끝까지 자신의 성에 대한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일방적 관계 맺기의 수준에 머문다. 반면, 사이먼은 성이 사랑과 생명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다프네와 상호소통적 관계 맺기에 성공한다.

정리하자면, D형이라 할 수 있는 ‘처녀를 속이는 남자’와 그 원형성을 계승한 <브리저튼>의 ‘사이먼’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과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 민담 속 ‘처녀를 속이는 남자’는 이러한 D형의 단점이 극대화되어 있는 캐릭터였다면, <브리저튼>의 ‘사이먼’은 D형의 단점이 극복되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사이먼의 성장, 즉 D형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I형이다. D형은 저항이 있더라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근을 취하고, I형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두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서로에게 영향

을 주어 긍정적 변화에 성공한 사례가 바로 <브리저튼>이라고 할 수 있다.

(3) ‘처녀의 부모’와 <브리저튼>의 ‘안소니(큰오빠)’ : C형(신중형)

C형(신중형)은 ‘원칙적임, 신중함, 방어적’이라는 특성과 ‘비관적, 부정적’ 등의 단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김진태 외, 2020, 54쪽)이 나타나는 캐릭터이다. D형과 C형의 행동 경향은 환경을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상황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이 D형이라면, 방어하는 것이 C형이다. 민담 속 ‘처녀의 부모’는 이러한 C형의 핵심 속성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민담에서는 C형 캐릭터의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가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브리저튼>에서는 C형 캐릭터의 이중성, 모순된 삶에 초점을 맞춘다.

‘처녀의 부모’의 원형성을 계승한 <브리저튼>의 ‘안소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억압된 욕망을 품고 있는 캐릭터이다. <브리저튼>에서 안소니와 사이먼은 대학 동창 관계로 창녀들과 방탕하고 난잡한 관계를 즐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막상 사이먼이 자신의 여동생 다프네와 가까워지자 안소니는 사이먼을 급격히 경계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브리저튼>에서는 억압된 욕망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C형 캐릭터가 갖는 이중성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억압된 욕망을 감시하는 자’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 또한 ‘억압된 욕망을 품고 있는 존재’이다.

정리하자면, C형이라 할 수 있는 ‘처녀의 부모’와 그 원형성을 계승한 <브리저튼>의 ‘안소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내향형의 과업중심형 캐릭터이다. 기존의 판을 지키려고 하면서 겪게 되는 자기모순은 C형 캐릭터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환경의 유지를 위해 억압되는 개인의 욕망 문제로부터 본인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망 또한 억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안하고 모순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로서 D형-I형-C형 조합이 갖는 의미

지금까지 원형적 캐릭터에 기반하여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과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동일한 캐릭터 유형 간의 조합이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과 <브리저튼>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 캐릭터 I형(사교형)을 중심으로 한쪽 편에는 D형(주도형) 남성 캐릭터가, 다른 편에는 C형(신중형) 보호자 캐릭터가 나타난다.¹⁷ 이러한 D형-I형-C형의 조합은 오늘날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민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캐릭터 유형의 조합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변용되면서 새로운 서사 창작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D형-I형-C형의 조합은 우리 삶과 관련한 보편적이면서도 원형적인 문제상황을 다루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드러내는 데 유효한 캐릭터의 조합이다.

특정 캐릭터 유형 간의 만남은 그 조합을 통해서만 잘 드러나는 특수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를테면, C형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규범의 감시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어려운 I형에게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D형과의 만남이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I형을 중심으로 하여 D형-I형-C형의 조합은 사회 규범의 철저한 감시와 압박 속에서 표출되는 억눌린 욕망, 특히 '성(性)'적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데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성도 따른다.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 내는 서사는 그 향유층에게 "남성" 섹슈얼리티를 자연화하고 신화화하는 담론 전략(김영희, 2019, 151-152쪽)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브리저튼>에서도 D형 남성이 I형 여성을 대하는 방식은 '성적 폭력'의 범주 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남성은 젠더적 우위를 이용하여 성에 무지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남성의 모습은 매력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브리저튼>에서는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결핍'된 자로 형상화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소망과 욕구가 분명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능동적 인물로 그려진다. 물론 '성에 무지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성적 무지함으로 인해 속임을 당하고,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성에 무지'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민담 속 '성에 무

¹⁷ '성에 무지한 처녀' 등장 민담과 <브리저튼>에서는 모두 여성 캐릭터가 I형, 남성 캐릭터가 D형이었다.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성별이 달라진다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이 D형(주도형)이고, 남성이 I형(사교형)인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캐릭터 유형 간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문제상황과 서사적 의미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한 처녀'도, <브리저튼>의 '다프네'도, '성에 무지한 존재'는 그 무지함 때문에 본인에게 감춰진 욕구와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반하여 속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성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남성에게 속는 지점'은 이들 여성 서사의 주체에게 당면한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서사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사의 분기점에서 여성 서사의 주체가 어떻게 선택하고 움직이는지가 이들의 존재적 속성, 원형적인 캐릭터성을 반영한다. 민담에서는 여성 서사 주체의 능동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으나, 동일한 계보를 잇고 있는 <브리저튼>에서는 여성 서사 주체의 능동성이 드러나며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만들어나간다. 오히려 '여성'보다 더 '결핍'이 있는 것은 '남성'이라는 반전을 보여주며, 여성에 의해 남성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서사로 나아간다. 민담 속 I형 여성은 D형 남성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지만, <브리저튼> 속 I형 여성은 D형 남성을 변화시킨다.¹⁸ <브리저튼>에서는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깨닫게 된 I형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처음 시작은 두 작품 모두 I형 여성이 소극적으로 상대 남성을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브리저튼>에서는 I형 여성이 변화하면서 오히려 상대 남성을 성장시킨다.

I형 여성의 변화 여부와 맞물려 D형 남성의 변화 여부 또한 전체 서사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담에서는 I형 여성의 '성적 무지함'만을 내세우고 있다면, <브리저튼>에서는 D형 남성의 '성적 무지함'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D형 남성은 성을 사랑과 연결 짓지 못하고 오로지 착취적인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그 누구와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민담 속 D형 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에 무지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브리저튼>의 D형 남성은 성이 사랑과 연결되며, 더 나아가 생명 탄생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브리저튼>에서는 I형 여성과 D형 남성 모두 성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면서 전체 서사의 방향이 상생의 서사로 나아간다.

C형은 사회 규범을 내재화하여 다른 사람의 욕망을 감시하는 역할로서 D형, I형

¹⁸ 이는 민담과 드라마라는 매체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담은 실제 우리 삶의 중요한 국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담아낸다면, 드라마는 더 인물 각각의 내면을 세밀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모두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다. 민담에서는 I형의 ‘부모’로, <브리저튼>에서는 I형의 ‘큰오빠’로 나타난다. C형은 사회 규범을 형상화하는 캐릭터인 만큼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모습일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민담 속 C형 인물인 ‘처녀의 부모’는 처녀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처녀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시키지 못한다. 그들 자신조차 억압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처녀에게 실상에 맞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딸이 성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성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첫 시작이 항상 부모의 외출로 시작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부모’는 ‘성에 무지한 처녀’ 옆에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처녀는 아직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나, 곧 독립하여 따로 살아야 하는 경계에 놓여 있다.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성에 무지’한 존재이다. 온전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성에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할 시기에 도달한 처녀는 성적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모는 오히려 처녀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주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처녀는 곧 독립해야 하지만, 성(性)과 관련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성적 폭력의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녀 혼자 그 문제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부모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도 못하고, 그 문제상황에 같이 있어 주지도 못한다. 이것이 ‘처녀의 부모’ 캐릭터가 갖는 원형적 속성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결국 ‘성에 무지한 처녀’에게 당면한 문제는 오롯이 처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된다.

‘성에 무지한 존재’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자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한 ‘처녀의 부모’ 캐릭터가 갖는 특성은 <브리저튼>의 ‘안소니’에게서도 발견된다. <브리저튼>에서 C형인 ‘안소니’는 기존 환경을 감시하는 사회 규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조차 그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욕망을 추구하는 모순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민담 속 C형인 ‘처녀의 부모’보다 그 이중성이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C형인 ‘안소니’는 D형인 ‘사이먼’과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 둘 다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이 중요하다. C형은 D형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사실 그 기반에는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다. 민담 속 ‘처녀의 부모’가 처녀를 속이는 남성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만, 사실은 그 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처녀의 부모’ 역시 처녀를 성적으로 억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처녀를 성에 무지하도록 방치한 것, 처녀가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억압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D형-I형-C형의 조합은 사회 규범의 철저한 감시와 압박 속에서 표출되는 억눌린 욕망, 특히 ‘성(性)’적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데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변화를 갈망하지만 억압된 욕망을 내재하고 있는 I형을 중심으로 하여 I형의 욕망을 ‘감시하는 자’와 I형의 억압된 욕망을 ‘자극하는 자’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I형의 억압된 욕망이 표출되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만약 D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I형-C형만 등장한다면, I형의 억압된 욕망은 끝까지 억압된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개인의 욕망,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욕망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감시자’의 등장은 개인의 억압된 욕망이 더욱더 억압되고 좌절되느냐 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만든다.

이때 ‘욕망을 자극하는 자’인 D형의 수준 또한 전체 서사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담 속 D형 남성은 낮은 수준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브리저튼> 속 D형 남성은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로서의 속성을 갖추게 된다. 어떤 수준의 D형과 만나느냐에 따라 I형은 억압된 욕망을 성취하는 데 성공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고, 억압된 욕망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여 좌절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자’의 등장만으로는 ‘억압된 욕망을 내재한 자’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욕망을 자극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위해 자극을 하는 것인지가 ‘억압된 욕망을 내재한 자’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피면서 D형-I형-C형 조합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영상 매체를 통한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변용 양상을 살피는 일은 각 캐릭터의 입체적인 속성을 새롭게

게 드러내면서, 하나의 작품만을 가지고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서사의 길을 제시해준다. 이를테면 민담 속 ‘성에 무지한 처녀’와 ‘처녀를 속이는 남자’의 조합은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브리저튼>에서는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서사적 길을 보여주고 있다.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피는 일은 캐릭터의 계보를 잇는 것뿐 아니라 같은 문제상황 속에서의 다양한 서사적 길을 탐색하는 일이기도 하다. 원형적 캐릭터의 변용 양상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더해지면 새로운 스토리 문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이 보다 입체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 구축을 위한 민담 속 캐릭터의 유형화와 현대적 변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성에 무지한 처녀’가 등장하는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유형을 체계화하였다. ‘성에 무지한 처녀’와 ‘처녀를 속이는 남자’, ‘처녀의 부모’ 등 각 캐릭터가 마주하는 문제상황은 그 자체로 오늘날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되는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서사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캐릭터가 마주하게 되는 서사의 분기점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상황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때 서사의 주체가 서사의 분기점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곧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속성 내지 원형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적용하여 주요 분기점에서 서사의 주체가 보여주는 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캐릭터가 지니는 원형적 속성을 유형화하였다.

3장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2020)에 나타난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 유형화한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들의 조합이 현대의 영상 매체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 변화의 의미와 새롭게 생성되는 서사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사에서 제기되었던 ‘성에 무지한 처녀’ 관련 민담 속 왜곡된 성 인식과 젠더 문제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민담 속 원형적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영희·이건웅·이승철(2012). 『DISC: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행동의 4가지 특성』. 학이시습.
- 김진태 외(2020). 『4가지 성격 DISC와 만나다』. 브레인레오.
- 김시연(2019). “구술 서사에 나타난 페니스의 절대화와 신화화-구전 이야기 ‘치녀 병 고친 소금장수’와 ‘첫날밤에 신랑 재촉한 신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53집, 한국구비문학회, 45-94.
- 김영희(2019). “‘남성’ 섹슈얼리티 신화의 서사적 계보 탐색”. 『젠더와 문화』, 제12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11-156.
- 김상미(2011). “어머니의 행동유형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DISC 행동유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빈·고혜영(2017).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역할에 따른 DISC 성향 연구- 미니언즈, 슈렉1,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2호,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119-141.
- 서성은(2018).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캐릭터 구축 전략 연구-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51, 인문콘텐츠학회, 69-91.
- 신동훈(2016).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33권, 한국화법학회, 59-92.
- 유승훈(2011). “설화 속 소금장수의 표상-중계자이자 매개자”.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8집,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1-74.
- 윤혜영(2020). “캐릭터 기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모델 연구 : 노드롭 프라이의 이론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61,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339-363.
- 이동은(2016). “메타이야기적 상상력과 캐릭터 중심 스토리텔링 모델”.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2,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13-240.
- 임혜리(2018). “고전 한문소설 《삼한습유》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2022). “구비설화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양상과 성 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Abstract ■

A study on the typology of archetypal characters in folktales and their modern transformations for a transmedia storytelling model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lktales about 'a virgin ignorant of sex' and the drama <Bridgerton>-

JI-YOUNG NA*

In this study, the typology of folktale characters and their modern transformation were studied for the construction of a transmedia storytelling model. In Chapter 2, DISC behavioral patterns were applied to systematize the types of archetypal characters in the folktales about 'a virgin ignorant of sex'. In this study, the DISC behavior type was applied to analyze the attributes of each character's attitude at major branching points to categorize the characters. In Chapter 3,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he archetypal characters in folktales that appeared in the Netflix drama <Bridgerton>(2020) were studied. How the combination of archetypal characters is being transformed in modern video media, and analyzed the meaning of the change and the value of the newly created narrative were explored. Furthermor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transmedia storytelling based on the archetypal characters in folktales.

Keywords: Folktale, Character, Prototypicality, DISC Behavioral Patterns, a Virgin Ignorant of Sex, Bridgerton, Transmedia Storytelling

■ 논문투고 : 2022년 4월 29 일 논문심사: 2022년 5월 21일 - 6월 9일 게재확정: 2022년 6월 9일

* KONKUK UNIVERSITY